

인터넷 홈플러스 사상최대 반값세일 3탄 돌입

박하나 기자

입력 : 2010.03.17 09:08 | 수정 : 2010.03.17 11:14

홈플러스는 18일부터 3번째 '사상 최대 반값 세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창립 11주년을 맞아 3월 한 달간 열리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앞서 시행된 것보다 종류를 대폭 늘렸다. '생필품 무조건 반값전', '유아용품 최대 40% 할인전', '후레쉬 럭키 11 페스티벌', '혼수가전 기획전', '아웃도어 최대 50% 할인전' 등 11가지 기획전을 통해 생필품 등을 한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찬들 구수한집된장(1kg)이 2300원, 농심 육개장사발면이 610원, LG테크(2.1kg)가 4640원 등에 판매된다. 국산돼지 뒷다리살(100g)이 480원, 제주감자(1.2kg)가 1800원, 바나나(특대/송이)가 2880원, 안동간고등어(400g)가 2490원에 판매된다.

한편 해당 품목을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5000원 상품권을 추가 증정하며 매일 오전 11시 인터넷쇼핑몰 이용고객 110명에게 1만원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또 18일과 19일 영도점을 제외한 전국 113개 푸드코트 4500개 전 메뉴를 무조건 반값에 제공한다.

홈플러스 마케팅부문 정병문 상무는 "앞으로도 제조사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 협력업체, 유통업체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입력: 2011-03-02 09:39:28 / 수정: 2011-03-02 09:39:29

홈플러스, 1200개 생필품 1년간 최대 50% 할인 행사

홈플러스(회장 이승한)는 창립 12주년을 맞아 1200개 주요 생필품을 1년간 최대 50% 할인한다고 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먼저 3일부터 내달 6일까지 5주간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콩나물, 두부 및 삼겹살, 한우와 가전제품 LED TV, 냉장고를 업계 최저 가격으로 동결한다.

국산콩나물(400g)과 국산콩두부(380g)는 각각 시중가의 절반 수준인 1000원, 1700원에 판매하고 한돈 냉장삼겹살(100g)은 1680원, 안심한우 등심(100g)은 4180원에 판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는 최대 40% 할인한다. 대우루컴즈의 22형 Full HD LED TV 3000대도 사전 기획을 통해 26만9000원에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또 가격에 민감한 인기 생필품 600개 품목을 선정해 1년간 시중가보다 5~50%(평균 10%) 싸게 팔고 여기에 매주 600개 상품을 추가해 할인행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6주간 인하되는 주요 상품은 라면, 식용유, 커피, 화장지, 세제 등으로 CJ라이온 비트드럼컬러케어카톤(2.5kg)은 45% 내린 9900원, 연세 목장우유(1L)은 5% 싼 2270원 등이다.

또 일주일간 소문난라면(100g*5입, 2500원), 모나리자 3겹 데코플러스(30m*24롤) 1+1 행사를 통해 라면은 개당 250원, 화장지는 롤당 330원에 판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소비자 혜택을 늘린 '착한 행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홈플러스, 오렌지·애호박 등 신선식품 최대 40% 할인

최종수정 2012-03-28 08:53

홈플러스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28개 점포에서 오렌지, 애호박, 해산물 등 봄 먹거리 신선식품 900여t 물량을 마련해 최대 40% 할인한다고 28일 밝혔다.

미국산 캘리포니아 오렌지 500여t을 준비해, 개당 220g 내외 중량은 800원에, 개당 280g 내외 중량은 980원에 제공하며, 제휴카드(현대, 하나SK, 롯데) 구매 시에는 10% 추가 할인해준다.

진주, 부여, 광양 등 주요 산지에서 직송한 애호박 150여t 물량을 개당 1580원에, 함안, 경주, 논산에서 직송한 총 130여t 물량의 토마토(1kg)와 짭짤이 토마토(700g)를 각 6480원에 판매한다.

봄 제철을 맞은 해산물도 70여t 물량을 엄선해 광어회(300g) 1만4800원, 주꾸미(100g) 980원, 피멍게(100g) 780원, 손질된 멍게(100g) 2980원, 자연산 키조개(마리) 1980원, 해삼(봉) 3980원, 도다리회(200g) 1만9800원 등에 마련했다.

이밖에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 주고자 팽이버섯, 적상추, 풋고추, 청양고추, 돈나물, 참나물 등 주요 채소 20여 종을 980원 균일가에, 배(개), 시금치(300g 내외), 대파(단), 동태(500g 내외), 참조기(70g 내외) 등도 1000원 균일가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31일 '갈비 데이'를 맞아 내달 4일까지 5일 동안 호주퀸즈랜드 목초지에서 키운 소 냉장찜갈비(100g)를 1080원에 판매하며, 제휴카드(현대, 하나SK, 롯데)로 구매시 10%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미국산 냉장 갈비살(100g)은 2180원, 양념소 LA갈비(100g) 1980원, 미국산 스테어링실버 냉장꽃갈비살(100g) 4180원, 1등급 한우찜용 갈비(1kg)는 3만9800원 이다.

안태환 홈플러스 신선식품본부 본부장은 "사전 대규모 물량 확보를 통해 다양한 신선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준비했다"며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310&idxno=563522>

취소

홈플러스, '매주 목요일 하나씩' 신선식품 반값 행사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입력 : 2013.03.06 11:13



홈플러스는 창립 14주년을 맞아 이달 한달간 전국 133개 점포에서 매주 목요일 하루 한가지 품목을 반값 판매하는 '한목(木) 잡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7일 첫번째 '한목 잡는 날'에는 멸치 전 품목을 반값에 판매한다. 볶음용, 조림용, 국물용 멸치 등 국내산 멸치 28종을 30% 할인 판매(신한, 삼성, 우리카드 결제시)하며 2000원 이상 구매 시 20%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주 목요일 다른 신선식품이 반값으로 고객을 찾아간다"며 "'10년 전 전단가격 그대로' 행사와 함께 신선식품 특가행사를 꾸준히 진행, 밥상 물가 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제주 무(개), 국산 돼지갈비(100g), 참조기(마리/70g) 등을 1000원에 판매하는 '천원의 행복' 행사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플러스, 신선식품 1만5천t 반값 판매

기사등록 일시 : [2014-03-12 18:51:15]

【서울=뉴시스】 박상권 기자 = 홈플러스는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39개 전 점포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우 전 품목을 30% 할인 판매한다.

이 기간 홈플러스는 농협 우수 직영목장에서 엄선한 한우 2500마리를 직송해 평소판매가 5900원인 한우 1등급 등심(100g)은 4130원에, 판매가 3000원인 1등급 불고기(100g)는 2100원 초특가에 판매한다. 단 신한·KB국민·현대·삼성카드로 결제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는 특히 마트3사 중 유일하게 농협 DNA 검사 및 잔류 항생물질 검사에 100% 합격한 ‘안심한우’만을 취급해 식품안전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같은 기간 신선식품 1만5000t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를 돕기 위해 생닭 30만 마리를 2마리(1마리 600g) 4900원에 선보이며, 친환경 대란은 50만판 물량을 마련해 30입을 4780원에 판매한다.

또 담양, 산청, 거창, 남원 등 유명산지 딸기(500g) 200t 물량은 팩당 5000원, 300t 물량을 마련한 성주 꿀참외(1kg)를 4900원에 판다. 채소값 폭락으로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채소도 대규모 물량을 마련해 깎마늘, 적상추, 깻잎, 고추, 양배추(통) 등 채소 23종을 1000원 균일가에 판다.

kwon@newsiscom

홈플러스, 25일까지 주요 신선식품 최대 반값 판매

기사등록 일시 : [2015-03-19 17:56:46]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홈플러스는 신선식품 연중상시 가격인하 및 창립 16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25일까지 주요 신선식품을 최대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사 기간 홈플러스는 하우스 봄 수박을 4~5kg 통 당 1만800원, 6kg 내외 통 당 1만2800원에 판매한다. 스위트마운틴 바나나(1.6kg 내외·송이·필리핀산) 3300원, 스위트오 바나나(1.3kg 내외·송이·필리핀산) 3900원, 태국 망고(12~16과·태국산) 3500원에 판매한다.

고당도 오렌지(미국산)는 총 500톤 물량을 마련했다. 4대 카드(신한·KB국민·삼성·현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오렌지 특대 및 특 사이즈를 각각 개당 700원, 500원에 선보인다.

천혜향은 평소보다 600% 이상 물량을 늘렸다. 특대·대 사이즈를 5개 이상 구매 시 40% 할인해 각각 개당 1500원, 1200원에 판다.

한라봉은 특대 및 대 사이즈를 5개 이상 구매 시 25% 할인해 각개 개당 1500원, 1200원에 판매한다. 200톤 이상 물량을 준비한 사과(특·개)는 1500원에 판매한다.

삼겹살과 한우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육류도 할인 판매한다. 1등급 이상 국내산 일품 삼겹살(100g)을 1580원에 선보이며, 21일까지는 4대 카드(신한·KB국민·삼성·현대) 구매 고객 대상 추가 할인해 1270에 판다.

또 4대 카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농협 안심한우 국거리 및 불고기(100g)는 2628원, 기타 브랜드한우 국거리 및 불고기(100g) 2748원, 냉동 LA식 꽃갈비(2.4kg, 팩, 미국산)는 5만 5000원에 판매한다.

snow@newsis.com